정보

개요
곡명: Flute Concerto, CNW 42 / FS 119

작곡가: Carl Nielsen (1865–1931)

작곡 시기: 1926년, 이탈리아 체류 중인 8월 –10월에 대부분 완성되었다 .

최초 연주: 1926년 10월 21일, Paris Maison Gaveau에서 Holger Gilbert-Jespersen이 독주하고 Emil Telmányi가 Orchestre de la Société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를 지휘했다.

완성판 첫 덴마크 연주: 1927년 1월 25일, Copenhagen Musikforeningen에서 Nielsen의 지휘와 Gilbert-Jespersen의 독주로 연주되었다 .

헌정: Holger Gilbert-Jespersen

장르: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2악장 협주곡

소요 시간: 약 18–20분

IMSLP: Flute Concerto, CNW 42 (Nielsen, Carl)

Wikipedia: Flute Concerto (Nielsen)

Carl Nielsen의 Flute Concerto는 Allegro moderato 와 여러 템포가 이어지는 복합 둘째 악장으로 구성된 2 악장 협주곡이다 . 코펜하겐 목관오중주단을 위해 구상한 협주곡 연작에서 나온 이 작품은 맑은 플루트와 성격 강한 관현악의 대화를 중심에 둔다. 특히 베이스 트롬본은 독주 플루트의 목가적 선율을 끊고 방향을 바꾸는 독특한 상대역으로 기능한다.

작곡 배경과 초연

Nielsen은 1922년 목관오중주 Op. 43을 연주한 코펜하겐 목관오중주단의 다섯 단원을 위해 각자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구상했다. 처음에는 클라리넷 협주곡을 생각했지만 , 1926년 여름 이탈리아에 머물던 중 파리에서 열릴 작품 연주회에 맞춰 플루트 협주곡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생전에 완성된 목관 협주곡은 이 작품과 1928년의 클라리넷 협주곡 두 곡이다.

1926년 10월 21일 Paris Maison Gaveau에서 열린 첫 공연에는 아직 임시 결말이 사용되었다 . Gilbert-Jespersen이 독주하고 Telmányi가 지휘한 이 연주는 Nielsen의 국제적 활동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작품의 결말은 공연 직전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Nielsen은 1927년 1월 새 결말을 썼고, 연구 논문은 새 결말이 이전 것보다 72마디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개정된 결말을 포함한 첫 덴마크 연주는 1927년 1월 25일 Copenhagen Musikforeningen에서 열렸다. Nielsen이 직접 지휘하고 Gilbert-Jespersen이 독주했으므로 , 파리의 임시 결말 연주와 코펜하겐의 완성판 연주를 서로 다른 판본의 첫 공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판과 판본

Royal Danish Library의 Catalogue of Carl Nielsen’s Works는 이 작품을 CNW 42, FS 119로 식별한다. IMSLP에는 1952년 Copenhagen Samfundet 판이 첫 출판으로 정리되어 있고, 2002년 Carl Nielsen Edition의 비평적 자료가 별도 판본으로 남아 있다. 1926년 파리 공연에 쓰인 임시 결말과 1927년 개정 결말을 악보에서 구별하는 일이 현대 연주의 기본 전제가 된다.

편성 표기에는 호른 수의 차이가 있다. CNW의 한 항목은 호른 4대를 적지만, 공개 파트와 Carl Nielsen Edition, 여러 연주기관 자료는 호른 2대를 일관되게 제시한다. 이 글의 편성은 실제 파트와 반복 확인된 2대 표기를 따르며, 원자료의 4대 표기는 서지상의 이견으로 남겨 둔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18–20분이다. IMSLP는 평균 18분, 연주기관 자료는 19분 안팎으로 안내하며, 개정 결말과 템포 선택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진다.

편성

독주 플루트와 다음 관현악을 사용한다.

목관: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2, 베이스 트롬본
타악기: 팀파니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금관이 거의 비어 있는 투명한 편성에서 베이스 트롬본 한 대가 낮고 거친 색채를 담당한다. 이 악기는 단순히 저음을 보강하지 않고, 독주 플루트와 목관이 만든 흐름을 갑자기 끊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두 악장의 구성

I. Allegro moderato

첫 악장은 협주적 소나타의 윤곽을 따르면서도 안정된 조성을 오래 유지하지 않는다. 플루트가 목가적으로 긴 선율을 내놓으면 클라리넷과 바순이 짧은 반응을 던지고, 현악이 그 재료를 다른 음역으로 옮긴다. 독주
플루트는 부드러운 노래와 빠른 응답을 오가며, 첫 카덴차를 목관과 나누어 협주곡을 실내악적인 대화로 바꾼다.

베이스 트롬본과 팀파니의 위협적인 개입은 플루트의 우아함을 일부러 흔든다. 이 거친 음향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 악장은 전통적인 독주와 합주의 대립보다 서로 끼어드는 성격들의 장면에 가까워진다
. 조성의 이동과 단편적인 재료가 이어지는 동안 플루트는 매번 새로운 말투로 같은 공간에 응답한다.

II. Allegretto un poco – Adagio ma non troppo – Allegretto – Poco adagio – Tempo di marcia

둘째 악장은 여러 템포가 한 악장 안에서 연결되는 복합 피날레다. 처음의 관현악은 Nielsen이 “조금 심술궂은
” 소리라고 표현한 음형으로 시작하고, 플루트는 순진하고 밝은 선율로 응답한다. Adagio ma non troppo 에서는 호흡이 길어지고, 다시 Allegretto 로 돌아오면 목관 사이의 짧은 농담이 움직임을 되살린다.

마지막 Tempo di marcia 에서 행진풍 리듬이 자리를 잡을 때 베이스 트롬본이 거친 글리산도와 낮은 몸짓으로 끼어든다. 플루트와 트롬본은 완전히 화해하기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균형에 도달하고, Poco adagio 의 여운이 개정 결말의 길어진 호흡을 준비한다.

목관오중주에서 온 실내악성

Nielsen은 목관오중주단의 연주를 듣고 각 단원의 음색과 성격을 협주곡으로 옮기려 했다. 플루트
협주곡에서도 독주자는 관현악 앞에 홀로 서기보다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과 문장을 주고받는다 . 플루트가 선율을 길게 이어 가는 동안 다른 목관이 문장의 끝을 받아 적고, 베이스 트롬본이 예상 밖의 음으로 장면을 비틀면서 작은 실내악 무대가 형성된다.

Nielsen이 남긴 프로그램 글은 플루트가 본성상 목가적이므로 작곡가가 그 부드러운 성격을 배려해야 한다는 농담을 담는다. 이 말은 곡의 모든 장면이 평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친 상대역을 배치하더라도 플루트의 가볍고 유연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작곡 원리를 보여 준다.

플루트와 베이스 트롬본의 대화

Carl Nielsen Studies의 연구자들은 플루트와 베이스 트롬본의 대비를 Ariel과 Caliban의 이중성으로 읽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연구자의 문학적 독법이지 Nielsen이 협주곡에 붙인 공식 프로그램은 아니다. 음악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은 높은 음역의 유연한 선과 낮은 음역의 거친 음색이 반복해서 맞부딪친다는 점이다.

이 대비는 단순한 색채 효과를 넘어 형식의 방향을 바꾼다. 플루트가 안정된 노래를 만들려는 순간 트롬본과 팀파니가 리듬을 흔들고, 흔들린 뒤에는 목관이 더 짧고 가벼운 문장으로 돌아온다. 개정 결말에서 행진풍과 글리산도가 길게 이어지는 이유도 이 상호작용을 마지막까지 남기기 위해서다.

□□ □□

- Concerto for Flute and Orchestra, CNW 42 (Royal Danish Library)
- Carl Nielsen□ □□ □□□ □□ □□□ □□ (Carl Nielsen 150)
- Form and revision of the ending (Carl Nielsen Studies)
- Nielsen □□□ □□□□ (Dacapo Records)
- Concerto for Flute and Orchestra (Edition·S)
- Carl Nielsen, Flute Concerto (IMSLP □□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7:38 UTC by □□□
Updated 2026-10-04 10:07:38 UTC by □□□